



**[미분양 6만가구 시대]**  
빈집 많은 지방 집값 폭  
임대전환 등 안간힘  
03



Economy

코스피	2271.54	코스닥	789.82
	(-54.59)		(-28.40)
금리 (국고채 3년)	2.12	환율 (원/달러)	1120.00
	(0.00)		(+5.50) (2일)

# 여론믿고 압색·영장 남발...잇단 기각에 檢 신뢰 추락

(압수수색)



업무 복귀한 文대통령

감기몸살에 걸려 지난달 28일부터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공식 출근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흔들리는 검찰권위

(上) 사라진 '불구속 원칙'

검찰과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경이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사건에 대해 절차적 요건보다 여론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서부지법 광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1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 판사는 함 행장이 하나는 행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이 특혜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에 다름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 당국이 확보한 증거 자료와 함 행장이 수사에 임한 태도 등을 고려해도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의 실무 책임자로 의심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대표의 구속영장은 5~6월 두 차례에 걸쳐 기각됐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조원의 장례식을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유족을 회유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범죄 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들여지가 있다고 봤다. 박 판사는 이씨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장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노조법 위반 등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구속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경의 부실한 준비에 따른 영장 기각은 일반인의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경찰은 유튜브 양예원(24·여) 씨의 노출 사진을 내려받

요해 영장 발부 여유가 없을 때 긴급체포 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판사는 강씨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5월 16일 유튜브에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 피팅모델로 일하려다가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노출 강요와 추행을 당했고, 관련 사진이 최근 유출됐다'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1일까지 조회수 738만 여회를 기록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구속영장은 검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거나, 경찰이 검찰에 신청해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후 피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다. (2면에 계속)

/이법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 350억 혈세 쓰고도 도움 안되는 'e나라도움'

(국고 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시스템 경험자 70% 불만족  
지원 선정돼도 어려워 포기  
휴게시판에 시스템 폐지 호소



e나라도움 시스템 폐지를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박근혜 정부 시절 350억원 가량의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국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이 오픈 1년여 만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예술인 등 나라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보조사업 참여자들의 중복·부정수급을 차단해 세금 낭비를 막아보겠다고 야심차게 개발해 오픈한 시스템이 사용자들의 불만 폭주로 설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만든 'e나라도움'이 사용자 편의성은 무시한 채 1년 남짓 운영되다 결국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꼴이다.

관련 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자 10명 중 7명은 '불만족'을, 특히

보조금을 받아 각종 문화예술활동 등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계는 e나라도움을 폐지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관련 시스템 개선 작업에 돌입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관련 시스템이 얼마나 탈바꿈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에도 'e나라도움 시스템 폐지를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됐

어도 시스템 사용이 어렵고 행정 업무가 많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면서 아예 청와대가 나서 관련 시스템을 폐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e나라도움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10차례 가량 의견수렴을 거치고, 1차 시스템 수정 작업에 이어 현재 2차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 사우디 원전 예비사업자에 韓 등 5개국 선정

한전, 최종사업자 선정 올인  
美·中·러·佛과 경쟁 예고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원전건설의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이 예비사업자로 선정, 향후 사업조건 협상을 통해 최종 사업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1400MW급 2기 규모의 사우디 신규 원전건설 예비자로 선정됨을 사우디 원자력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공식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 경험, 프로젝트 관리 능력과 경제적인 건설비 등이 경쟁력 대비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전은 이를 앞세워 사우디 원전사업 수주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사우디는 '비전 2030' 경제·사회 개혁 계획 하에 현재 90%에 이르는 석유 의존도를 약 50%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하는 등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사우디는 2030년까지 2.8GW 규모의 원전 2기를 최초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은 사우디와 인접한 UAE에 국내 원전 역사상 최초로 한국형 원전인 'APR1400' 4기를 수출한 바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한전이 이번 사우디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한전이 사우디 신규 원전건설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UAE 원전 이후 9년 만에 해외원전사업을 수주하는 쾌거이자, 중동지역 원전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세계 경제 침체에도 한국은 살아남을 것”

삼성증권 짐 로저스 초청 강연

韓, 北 개방 통해 수혜 예상  
韓 자본+北 자원 '큰 시너지'

세계 3대 투자대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2일 “세계 경제는 앞으로 몇 년 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한국은 북한의 경제 개방이 어느정도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8면)

이날 삼성증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가진 초청 강연회에서 짐 로저스는 한국이 북한 개방을 통해 세계 경제 침체 위기를 피하고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짐 로저스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등과 함께 세계 3대 투자대가로 손꼽힌다. '월가의 신화'로도 불리고 있다.

짐 로저스는 “세계 경제는 내가 살아온 시간 중에 제일 힘든 시간



2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투자 전략 세미나'에서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왼쪽)과 짐 로저스(오른쪽) 회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증권

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 대차대조표만 봐도 (부채가) 10년 동안 500% 이상 커졌고, 2008년과 달리 중국 조차도 굉장히 많은 부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 대해선 금

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특히 한국의 관광업종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과도한 통일비용 역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북한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남북이 절감하는 군 비용도 상당할 것”이라면서 “동독의 경우 서독과 통일됐을 때 주변에 자금을 쏟아부어줄 부유한 국가가 없었다. 반면 북한은 중국·한국·러시아와 같은 이웃국가들이 있어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개방의지는 확실한 것으로 봤다. 특히 한국의 자본과 경영 능력에 북한의 잘 교육된 인적자원과 천연자원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로저스 회장의 진단이다. (2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